

신강까지 확대된 무료배송... 서부지역 농특산물 판매도 '들쭉'



4월 9일, 신강위글자지구 우룸치에 위치한 중통익스프레스(中通快运) 현대화센터에서 대형 홈퍼니싱 택배를 분류하고 있는 작업자들.

일전 신강위글자지구 악수(阿克苏) 지역 바이(拜城) 현에 사는 마리아무·투니아즈(马热亚木·吐尼亚孜)는 토우보를 통해 광둥 불산에서 생산된 썬파를 구매했다. 6일후 썬파는 4,000여키로메터를 이동해 바이현에 도착했다. 배송비가 무료일 뿐만 아니라 택배기사가 집앞까지 배달 해주었다.

이처럼 서부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전자상거래 무료배송' 서비스를 누리고 있다. '강소, 절강, 상해 무료배송'에서 '서부지역 무료배송'까지... 상품류통, 물류망이 갈수록 촘촘해지면서 '제로 배송비' 택배가 서부의 다수 지역까지 확대되고 있다.

최근 토우보는 썬파, 침대, 변기 등 대형 홈퍼니싱 제품을 신강 무료배송 서비스 품목에 포함시켰다.

도천(淘天) 그룹 홈퍼니싱 공급사

슬 책임자 리복전(李福全)은 올 3월 이후 서비스 품목을 대형 가구로 확대했다면서 이미 100만건이 넘는 대형 상품이 신강까지 무료로 배송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강의 90% 이상 대형 상품 주문이 플랫폼에서 무료 배송 서비스와 운송비 보조금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부연했다.

"대형 상품을 무료배송한다고 비용을 업체에 전가하는 것은 아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토우보는 산업벨트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기존에 건설된 산지에서 바로 상품을 발송한다. 산업벨트에 없는 상품의 경우 플랫폼을 통해 화물을 모은 후 중간집중배송 방식으로 서안에서 한꺼번에 신강으로 운송한다. 대부분 후반부 운송 비용은 플랫폼에서 보조한다.

그동안 서부지역은 물류비용이 높고 상품 왕복 주기가 길 뿐만 아니



4월 11일, 토우보 앱에 출시된 '신강 무료배송' 전용 페이지.

라 일부 상품의 시효성 때문에 무료 배송이 힘들었고 반품·교환이 불편했다.

이에 우정부문의 추진으로 다수의 물류기업이 서부지역에서 서비스망 배치를 가속화했는데 특히 중간집중 배송을 리용한 물류비용 절감에 주력했다.

이와 더불어 각지 정부도 물류 인프라 건설을 지원하는 정책을 적극 내놓았다. 내몽골자치구는 농촌 목적지역의 려객·화물·우편의 융합 발전, 택배의 농촌 배송 보조금 지급 등 정책을 고품질 발전 리스트에 포함시키면서 12개 맹(盟)·시가 일제히 재정보조금 정책을 발표했다. 신강은 우정·택배 인프라 건설을 확대하며 성(省)급 분류센터 14곳, 지(地)·주(州)·시급 분류센터 85 곳을 건설했다.

신통(申通) 택배 공급사슬업무 책임자 룽봉봉(陆封烽)은 "사전성 간양(简阳)시에 집중배송센터를 건설했다."면서 "규모 효과를 통해 운송 비용을 낮추자 서장으로 가는 택배수가 약 60% 늘었다."고 설명했다.

신강우정관리국 시장감독관리처 고려명(高黎明) 처장은 "상품 모니터링 상황을 살펴보면 업체의 발송 거부 비중이 꾸준히 감소되고 있다."면서 "전문조사 통계에 따르면 73.39%의 응답자가 '배송 거부' 상황이 개선됐다고 답했고 그중 눈에 띄게 개선됐다고 응답한 사람이 31.96%에 달했다."고 말했다.

물류가 원활하게 돌기 시작하자 서부지역 농특산물의 판매도 덩달아 늘고 있다.

매년 3월-4월은 신강 카스지역 자씨(伽师) 현의 블루베리 수확절이다. 카스지역 우정관리국 왕효호(王晓虎) 국장은 여러 택배기업이 블루베리기에 수거 지점을 설치하고 전담 직원과 전용 차량을 배치해 블루베리의 장거리 배송을 보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산지에서 바로 포장·수거하여 항공편으로 전국 각지에 보내기에 배송 기간이 2~3일로 단축됐다는 설명이다.

한편 중국물류및구매연합회 항만공급사슬분회 비서장 양달경(杨达卿)은 물류비용 감소로 소비가 더 편리해졌다고 표시했다. 또한 서부지역의 료식업 매장, 농가, 택배 종사자 등 계층 역시 전자상거래 활성화의 직접적인 수혜자로 될 것이라며 전자상거래의 지속적인 '서부 진출'이 다차원적인 발전 리익을 창출해내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 곡물 생산량 7억 900만톤 예상

역대 최고치인 지난해 률가

우리 나라 올해 곡물 생산량이 사상 최고치인 지난해(7억 650만톤) 수준을 률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20일 농업농촌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곡물 생산량은 7억 900만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중 벼, 밀, 옥수수의 생산량은 전년 대비 각각 0.5%, 0.9%, 0.2% 증가하고 콩 생산량은 전년 대

비 2.5% 증가한 2,117만톤에 이를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한편 올해 농산물 생산량이 늘어나는 데 반해 소비 증가폭은 완화된 농산물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또 향후 10년간 우리나라 농업생산력의 획기적인 향상과 곡물 종합생산력 증대로 식량생산 리스크 억제 및 대비 능력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신화넷

중경 무산현 다양한 조치로 자두 판로 확대



중경시 무산현 곡척향을 찾은 관광객들이 자두과수원에서 꽃을 감상하고 있다. /신화넷

매년 3, 4월이던 중경시 무산(巫山) 현 곡척(曲尺) 향의 드넓은 과수원에는 자두꽃이 만개한다.

새하얀 자두꽃으로 뒤덮인 장강 광안이 장관을 이루며 관광객들의 발길을 이어지자 곡척향 주민 손미령(孙美玲)의 농가락도 1년중 가장 바쁜 시기를 맞이한다.

손미령은 "자두꽃이 피기 시작하면 농가락도 문전성시를 이룬다."면서 "하루 수입이 1만원을 넘을 때도 있다."고 말했다.

은 산속에서 자라고 과육이 연한 무산현 자두는 운송 시간이 길어지면 식감이 크게 떨어지기에 물류가 가장 관건이다. 이에 선박과 육상 운송 외에도 드론을 리용해 자두를 산 밖으로 실어 나르면서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찾아냈다.

지난해 무산현은 자두 운송에 최초로 '항공-항공 복합 운송' 방식을 도입했다. 무산현 자두를 실은 드론이 곡척향을 떠나 무산공항에 도착한 후 다시 전세기를 통해 다른 지역으로 운반된다. 기존의 '육상-항공 복합 운송'에 비해 '항공-항공 복합 운송'은 환적 시간이 1시간에서 8분으로 대폭 단축되면서 자두의 품질을 보장하는 한편 비용도 절감됐다.

무산현교통운수위원회 관계자는 예전에는 무산현 자두를 남경, 상해 등 도시로 판매하려면 보통 육로로 4~5일이 걸렸지만 '항공-항공 복합 운송'을 통해 8분 환적, 24시간 이내 도착이 가능해졌다고 소개했다.

이외에도 무산현은 생산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국가자두기술혁신센터를 건설하여 자두주, 자두 마스크팩 등 다양한 파생 제품을 개발함으로써 자두의 가치사슬을 확장하고 있다. 현재 무산현의 자두 재배 면적은 약 2만헥타르, 종합생산액은 약 21억원에 달한다. /신화넷

곡척향은 오래전부터 자두를 재배해왔다. 하지만 예전에는 단순히 판매를 위한 재배였기에 주민들은 단일 수입원에 의존했다. 게다가 자두는 신선도를 오래 유지하기 어려워 장기 저장이 힘들기에 기껏해야 무산현에 가서 판매하는 정도였다.

곡척향당위 선전위원 기세명(纪世明)은 자두꽃을 매개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객을 통해 무산현 자두를 홍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산현은 최근 수년간 자두산업을 문화관광과 깊이 융합해 자두꽃축제를 여러차례 개최하며 이 지역만의 독특한 '농업·관광 연계 모델'을 발전시켰다. 또한 매년 자두꽃축제 기간마다 '꽃나들이 유람선'을 특별 운항하며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끌어올렸다.

자두꽃이 진 뒤 자두가 무르익는 시기가 되면 무산현의 '육·해·공'은 모두 바빠 움직이기 시작한다. /신화넷

'장미형제'의 '아름다운 사업'



봄꽃이 만발하는 계절이 다가오자 절강성 룽유현(龙游县) 소남해진(小南海镇) 주홍판촌(周红坂村)의 장미원은 다시 북적이기 시작했다. 2016년, 대학생 점준도(占俊涛)와 류강(刘刚)은 함께 고향에 돌아와 유럽 장미 품종을 도입하여 이 장미원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현재 이들 '장미형제'는 재배면적이 40여무에 달하는 두 생산기지에 국내외 400여종의 장미 품종을 키우고 있다. 장미원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선절화(鲜切花)를 판매하는 한편 관광객형형 수확 프로그램을 운영해 봄기를 꽃철이면 하루 평균 500여명의 방문객을 맞이하여 200여만원의 연간 매출을 올리고 있다. 또한 린근 농가에 취업 기회를 마련해주면서 두 젊은이의 '아름다운 사업'에 힘을 보태고 있다.

사진은 4월 22일, 룽유현 장미원에서 여행객들이 월계꽃을 따고 있는 장면이다. /신화넷

산동성, 강력한 컴퓨팅파워 구축으로 AI 응용 뒤받침

산동성이 강력한 컴퓨팅파워를 구축하며 인공지능(AI) 응용을 뒤받침하고 있다.

청도 AI 컴퓨팅센터의 기계실에는 줄지어 늘어선 기계들이 강력한 컴퓨팅파워를 끊임없이 송출하고 있다. "올 들어 다수 기업과 연구기관에서 AI 기술 응용 및 파운데이션 모델 배치를 가속화하면서 컴퓨팅파워에 대한 수요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현재 컴퓨팅센터의 평균 부하율은 60% 정도 되고 최고 90%에 달할 때도 있다." 청도 AI 컴퓨팅센터 운영책임자의 설명이다.

올 들어 딥시크(DeepSeek·深度求索) 등 파운데이션 모델이 꾸준히 화제가 되면서 중국의 AI 관련 산업 발전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는 평가다. 이 과정에서 컴퓨팅파워는 신질생산력을 자극하는 핵심 엔진중 하나가 됐다.

청도 AI 컴퓨팅센터는 산동성 최초의 AI 컴퓨팅센터로 초기 건설 규모는 100페타플롭스, 컴퓨팅 속도가 1초에 10경회에 달하는 셈이다. 해당 센터는 하이얼(海尔), 하이센스(海信), 해양(海洋) 대학 등 300여개 기업, 대학, 연구기관과 협력하며 스마트 해양, 안전한 도시, 스마트 교통, 공업 품질 검사, 스마트 제조, 스마트 전력 등 영역에 강력한 컴퓨팅파워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제남 AI 컴퓨팅파워 프로젝트가 준공 검수를 통과했다. 해당 프로젝트의 컴퓨팅파워 규모는 1,030페타플롭스로 컴퓨팅파워·데이터·알고리즘·서비스의 전체 링크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지난해 8월 준공 이후 안정적인 테스트 운영을 거쳐 이미 선두 과학기술기업, 과학연구대학, 중소기업에 컴퓨팅파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 AI 혁신 응용 선도구로서 제남시는 AI 산업 발전의 탄탄한 기초를 다지고 있는바 컴퓨팅파워 지원, 데이터자원, 산업생태, 인재 보장 등 면에서 분명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제남시 AI 산업발전판공실 량갑맹(梁甲猛) 부주임은 다중 이기종 컴퓨팅파

워 매트릭스를 구축함으로써 이미 전통적인 슈퍼컴퓨팅과 스마트 컴퓨팅의 융합 협동 발전을 이뤘다면서 이는 AI 산업 발전을 강력하게 뒤받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수년간 산동성의 컴퓨팅파워 규모는 안정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사용중인 컴퓨팅파워 규모는 약 11.34엑사플롭스로 2023년보다 1.68엑사플롭스 올랐다. 제남시와 청도시는 국가급 인터넷 백본 교환 지점을 기반으로 이미 저지연 데이터센터 핵심구를 구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화넷



2월 18일, 산동성 제남역 생산지휘센터에서 기술자가 디지털 철도 건설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신화넷

하북 스포츠대회 지역 경제에 '훈풍'

스포츠대회가 하북성 지역 경제를 살리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북성 스포츠대회 경제 발전 보고서(2024-2025)〉에 따르면 2024년에 하북은 각종 스포츠대회를 4,760차례 개최했다. 경기 참가자 및 관중 수는 1,091만 3,100명으로 162억원 이상의 소비를 창출했다.

하북은 스포츠대회 경제, 특히 아웃도어 스포츠 산업에서 독특한 지리·시장·자원 우위를 지니고 있다.

북경·천진과 린접한 하북은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스포츠 소비 인구를 지닌 지역중 하나로서 동계올림픽 경기장, 다수의 국가급 스키관광 리조트, 스포츠 관광 시범기지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지형이 가장 다양한 성으로 각종 아웃도어 스포츠 프로젝트나 대회를 개최하기에 적합하다.

특히 하북성은 빙설스포츠 경제에서 두각을 드러냈다. 하북성체육국 전건공(田建功) 부국장에 따르면 2024년-2025년 스키 시즌에 260

차례의 빙설 관련 전문 스포츠대회가 하북성에서 열렸다. 그중 국제설상대회는 8차례, 국가급 빙설대회는 22차례로 우리나라에서 개최한 대회의 44.4%, 40%를 각기 차지하면서 모두 전국 1위를 자랑했다.

그중 경기장 적응성 개조, 서비스 최적화, 스포츠대회 등급 향상, 원활한 교통망 등 조치로 동계올림픽 도시인 숭례(崇礼)의 립지가 점차 두드러지고 있다.

"2024년-2025년 스키 시즌에 숭례를 찾은 관광객은 520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했다. 북경동계올림픽 경기장인 장가구 운정(云顶) 스키공원은 23.5% 확대된 50만명 이상이 방문했다." 전건공의 말이다.

하북성체육국 왕표(王彪) 국장은 "하북은 지난해 성장세를 이어받아 올 1분기에도 각종 스포츠대회를 1,435차례 개최해 259만 4,900명의 경기 참가자 및 관중을 유치했다."면서 "이를 통해 43억원의 소비를 직접적으로 창출했다."고 전했다. /신화넷